# 2017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심사 중인 주목할 만한 이민 관련 사건들

이 주 연(Lee, Ju Yoen)*

미국 연방대법원 앞에서 이민자 추방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피켓을 들고 있다.
(http://www.pottsmartinez.com/latest-news/will-supreme-court-deliver-much-anticipated-relief-immigrant-families/)

## Ⅰ. 서론

이민자 문제는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것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한 이래 미국 내에서 가장 논란이 된 이슈 중 하나일 것이다. 실제로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10월 상반기에 변론이 열린 13개 사건 중 이민문제와 관련된 사건만 4건에 달한다.[1] 그

* 변호사/법학박사, 현 코넬대학교 로스쿨 visiting scholar

1) Argument Calendar October 2017,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중 *Trump v. Int'l Refugee Assistance Project* 사건과 *Trump v. Hawaii* 사건은 모두 트럼프가 올해 1월 27일에 처음 서명하고, 3월 6일에 일부 수정하여 새롭게 발표한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에 관한 사건들이다. 이 행정명령에 대하여는 올해 4월에 실린 헌법재판연구원 해외통신원 소식 등을 통해 국내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된 바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나 중요한 2가지 이민법 사건인 *Jennings v. Rodriguez* 사건과 *Sessions v. Dimaya* 사건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 Ⅱ. *Sessions v. Dimaya*[2)]

먼저 10월 2일에 재변론(reargument)이 열린 *Sessions v. Dimaya* 사건은 이민법상 추방 가능한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ies)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은 추방과 입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들을 다수 열거하고 있는데, 이민 관련 서류위조 등 이민법을 포함한 연방법 위반 혹은 테러나 제노사이드 참여 등 국제법 위반 등으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3)] 개별 주의 형법상 중범죄나 가정폭력 사건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본 사건의 사안은 다음과 같다. 필리핀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인 James Garcia Dimaya는 1992년에 미국으로 합법적으로 이주하였는데, 2007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주거침입절도 혐의로 2년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다. 미국 연방국토안보부 소속 이민국(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

https://www.supremecourt.gov/oral_arguments/calendars/MonthlyArgumentCalOctober2017.html (최종방문일: 2017. 10. 15.).

2) Docket number: 15-1498, Term: 2017.

3) INA: ACT 237 - GENERAL CLASSES OF DEPORTABLE ALIENS, https://www.uscis.gov/ilink/docView/SLB/HTML/SLB/0-0-0-1/0-0-0-29/0-0-0-5684.html (최종방문일: 2017. 10. 15.); 추방 사유에 따라 미국 재입국이 불허되는 기간에도 차이가 있다. 예컨대 일반적인 추방사건의 경우에는 통상 5년간 입국이 불허되지만, 추방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외국으로 도피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늘어나고, 이 사건에서처럼 중범죄자로 분류된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입국이 불허된다.

Immigration Services)은 상습 절도는 '추방 가능한 가중 중범죄'라며 Dimaya에게 추방을 명령했고, Dimaya는 주택침입절도는 '가중 중범죄'가 아니므로 추방할 수 있는 이민국적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연방법무부 이민항소위원회(Board of Immigration Appeals)에 항소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Dimaya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2015년 10월에 제9 연방항소법원은 이민법상 '추방 가능한 가중 중범죄'의 정의가 '모호하다'고 판단하여 Dimaya의 손을 들어주었다.[4] 이에 연방정부가 상고하여 연방대법원이 심리에 나섰고, 올해 1월에 한차례 변론을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0월에 다시 변론을 연 것이다.

Dimaya가 제9 연방항소법원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주요 근거는 2015년에 연방대법원이 *Johnson v. United States* 사건에서 '총기류를 사용한 상습범처벌법(Armed Career Criminal Act)'상의 '폭력적인 중범죄(violent felony)'라는 조항이 불분명하여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던 것이었다. Dimaya는 이에 근거하여 미국 이민법 상의 폭력범죄(crime of violence)라는 용어가 불분명하므로 자신의 주거침입절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였고, 항소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불명확하므로 무효"라는 헌법상 원리가 민사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5] 이 문제에 대하여 노스캐롤라이나대학 로스쿨 Carissa Hessick 교수는 이 사건의 핵심은 "불명확하므로 무효"라는 원리가 형사사건에서처럼 이민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 이민사건은 민사사건이고, 연방대법원은 과거 오랫동안 "불명확하므로 무효"라는 원리는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사건에서와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 만일 연방대법원이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민사

4) Dimaya v. Lynch, 803 F.3d 1110 (9th Cir. 2015).
5) 기본적으로 미국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행정소송 제도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도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진행하며, 따라서 이민과 관련된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행정사건도 민사사건으로 분류한다.

건의 경우에는 “불명확하므로 무효”라는 원리가 똑같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결한다면, 이는 동일한 법조문이 어떤 사건에서는 불명확하므로 위헌이지만 다른 사건에서는 위헌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으므로 이상한 결과가 될 것이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6)]

최근 2-3년 동안 연방대법원은 범죄자 추방 사건들을 꾸준히 다루어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범죄자(criminal aliens)’를 미국에서 추방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앞으로 범죄자 추방 사건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연방대법원에서 문제된 사건들은 대체로 법조문의 해석 내지 행정부의 재량 문제와 관련된 일반적인 문제가 대다수였고, 역사적으로 중범죄자의 추방 문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 적이 별로 없었다.[7)] 그렇지만 연방대법원이 올해 6월에 판결한 *Sessions v. Morales-Santana* 사건[8)]에서 해외에서 출생한 아이의 부모 중 어느 한쪽만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 부모의 성별에 따라 아이의 시민권 취득조건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일부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성별에 따른 차별금지라는 헌법상 기준을 적용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연방대법원은 이민법에도 본격적으로 헌법상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9)]

## Ⅲ. *Jennings v. Rodriguez*[10)]

미국 내에서 주목받고 있는, 연방대법원에 계류 중인 또다른 이민 관련 사

---

6) Carissa Hessick, *Assessing the Impact of Johnson v. United States on the Void-for-Vagueness Doctrine,* Casetext, Oct. 24 2016, https://casetext.com/posts/assessing-the-impact-of-johnson-v-united-states-on-the-void-for-vagueness-doctrine (최종방문일: 2017. 10. 15.).

7) Kevin Johnson, *No decision in two immigration-enforcement cases*, SCOTUSblog, June 26, 2017, http://www.scotusblog.com/2017/06/no-decision-two-immigration-enforcement-cases/ (최종방문일: 2017. 10. 15.).

8) Docket number: 15-1191, Term: 2016.

9) Kevin Johnson, *supra* note 7.

10) Docket number: 15-1204, Term: 2017.

건인 *Jennings v. Rodriguez*도 본래 제9 연방항소법원에서 판결한 사건이다. 집단소송(class action)인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에 첫 변론을 열었지만 Dimaya 사건과 마찬가지로 바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고, 올해 10월 3일에 재변론이 열렸다.

이민자 구금(detention)이 문제된 이 사건의 사안은 다음과 같다. 2007년에 구금상태에서 추방여부 심사절차가 진행 중이던 Alejandro Garcia라는 원고가 연방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석방을 요구하며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인신보호영장(writ of habeas corpus) 발부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의 명칭에도 표기된 Alejandro Rodriguez가 동일한 유형의 사건을 같은 법원에 제기하여 두 사건이 병합되었다. 이후 두 원고는 집단소송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법원이 2008년 3월에 이를 승인하지 않았는데, 이 결정은 2009년 8월에 제9 연방항소법원이 집단소송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여 파기환송되었다.[11] 이후 이 사건은 여러 다른 원고들이 합류하고 이들이 같은 상황에 놓인 집단을 대표하는 집단소송으로 진행되었다.

미국 연방법에 의하면 연방정부는 외국인의 체류를 허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방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보석 없이 구금하게 하는 여러 조항들이 있다.[12] 그러나 테러나 중범죄 등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으로 인하여 구금된 일부 외국인들은 공공에 대한 위해를 가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석방될 수 있다.[13]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이민과 관련한 정부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한 원고를 정부가 무기한 구금할 수 있는지, 또는 구금 후 6개월

11) *Rodriguez v. Hayes*, 578 F.3d 1032 (9th Cir. 2009). 제9 연방항소법원은 집단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 집단(class)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캘리포니아 중부지구(Central District) 내에 있는, 시민권이 없는 자들 중에서 (1) 추방절차가 완료되기까지 일반 이민자 구금조항에 따라 6개월 이상 구금되었거나 현재도 구금 중인 자; (2) 국가안보상 구금조항에 따라 구금되어 있지 않은 자; (3) 구금이 정당한지 여부를 심사할 심리(hearing)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자. *Rodriguez v. Holder*, 2013 WL 5229795, *1 (C.D. Cal.. August 6, 2013).

12) 8 U.S. Code § 1225(b); § 1226(a): § 1226(c): § 1231(a).

13) 추방 대상자의 보석여부와 보석금의 액수는 연방이민국에서 결정한다. 이민국이 부과하는 보석금이 과도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보석금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부터 시작하여 매 6개월마다 법원에 의한 보석심리가 열려야 하는지 여부였다. 제9 연방항소법원은 2013년 4월에 장기간 구금된 자들에게 보석심리(bond hearing) 기회를 부여하라는 잠정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고,[14] 이어 2015년 10월에는 같은 취지로 영구적 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on)을 내렸다.[15] 이에 연방정부는 구금된 매 6개월마다 모든 외국인에 대한 보석심리를 의무화한 제9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 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구금된 미국인들에게는 기본적인 헌법상 보호수단이 보장되지만, 역사적으로 외국인들에게 인정되는 헌법상 기본권은 크게 제한되어 왔기 때문에 그러한 보호수단은 외국인들의 제한된 기본권과는 잘 부합하지 않는다.[16] 그러한 불일치 때문에 그동안 연방대법원은 이민자 구금 사건에서 일관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왔다.[17]

보석심사나 석방 가능성이 없는 무기한 구금은 분명 위헌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에 의한 불법이민자 구금의 심각성은 그동안 축소 내지 왜곡되어 왔다. 지난해 8월에는 당시 미국 법무부 송무차관(Solicitor General)을 맡고 있던 Ian Gershengorn이 연방대법원에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내어 과거 오류를 인정하였다. 송무차관실은 “불법 이민자들이 추방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구금상태에서 지내는 평균 기간을 실제보다 더 짧게 계산하였다. 2003년에 송무차관실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평균 구금기간이 4개월이라고 한 바 있다 ... 평균 구금기간은 실제로는 1년 이상이었다.”[18] 또한 이 사건에서처럼 구금된 불법이민자의 수는 무려 4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9]

---

14) *Rodriguez v. Robbins*, 715 F.3d 1127 (9th Cir. 2013).
15) *Rodriguez v. Robbins*, 804 F.3d 1060 (9th Cir. 2015).
16) Kevin Johnson, *supra* note 7.
17) *Ibid.*
18) Kassia Halcli, *Inside the Supreme Court's little-known revision process*, PBS, Oct. 4, 2016, http://www.pbs.org/newshour/updates/inside-supreme-courts-little-known-revision-process/ (최종방문일: 2017. 10. 15.).
19) Lauren Etter, *Record Numbers of Undocumented Immigrants Being Detained in U.S.*, Bloomberg, Nov. 10, 2016,

## Ⅳ. 결어

앞서 보았듯 이민 사건은 그동안 연방대법원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렇지만 최근 그러한 경향은 바뀌어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근래 연방대법원에서 보수-진보 성향의 대법관들 사이의 대립구도가 매우 뚜렷한 상태라는 점,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Neil Gorsuch 대법관이 앞서 언급한 *Sessions v. Morales-Santana* 사건 판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Gorsuch 대법관이 10월에 심리에 참여한 두 사건의 경우에도 이민 사건에 헌법상 기준을 적용해온 최근 연방대법원의 태도가 유지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 또한 이 글에서 주요하게 다룬 두 사건 모두 원심법원이 미국 내에서도 대체로 진보적인 법원으로 평가받는 제9 연방항소법원이라는 점에서 연방대법원과 제9 연방항소법원 사이의 긴장관계도 관심을 가질 만한 대목이다. 실제로 *Rodriguez* 사건의 경우 일부 연방대법관들은 보석심사 기간을 매 6개월로 특정하였다는 점에서 항소법원이 입법자의 역할을 대신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다.[21]

---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6-11-10/record-numbers-of-undocumented-immigrants-being-detained-in-u-s (최종방문일: 2017. 10. 15.).

20) 일각에서는 10월 2일에 열린 *Sessions v. Dimaya* 사건 변론에서의 Gorsuch 대법관의 발언을 보면 *Johnson* 사건 판결의 논리를 본 사건에도 엄격하게 적용할 것처럼 보여 Dimaya에 유리한 분위기가 감지되었고, 10월 3일에 열린 *Jennings v. Rodriguez* 사건 변론에서도 John Roberts 대법원장을 비롯한 다수 대법관들이 중립적인 제3자가 개입하지 않는, 행정기관에 의한 무기한 구금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는 등 Rodriguez에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Kevin Johnson, *Argument analysis: Faithful to Scalia, Gorsuch may be deciding vote for immigrant*, SCOTUSblog, Oct. 3, 2017, http://www.scotusblog.com/2017/10/argument-analysis-faithful-scalia-gorsuch-may-deciding-vote-immigrant/ (최종방문일: 2017. 10. 15.); Kevin Johnson, *Argument analysis: Justices seem primed to find constitutional limits on the detention of immigrants*, SCOTUSblog, Oct. 4, 2017. http://www.scotusblog.com/2017/10/argument-analysis-justices-seem-primed-find-constitutional-limits-detention-immigrants/ (최종방문일: 2017. 10. 15.).

21) Kevin Johnson, *Argument preview: The constitutionality of mandatory and lengthy immigrant detention without a bond hearing*, SCOTUSblog, Sept. 26, 2017, http://www.scotusblog.com/2016/12/argument-analysis-immigrant-detention-and-the-constitution/ (최종방문일: 2017. 10. 15.).